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두륜산정 높아 사다리 걸쳐도…"

1830년 두 번째 상경 길에 오른 초의스님, 그는 추사 댁에 머물며 경향의 사대부들을 만나 스승 완호의 탑명을 받고자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마장이 생기는 법. 추사의 부친 김노경이 고금도로 유배되는 불운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불원천리(不遠千里)를 달려온 초의로서는 우선 추사 댁의 우환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러나 만나야할 인연은 우연처럼 닥아 오는 법이다. 그가 홍현주의 별서 청량산방에 머물며, 경향의 문사들과 문재(文才)를 뽐내고, 세상에 초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이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초의가 쓴 〈주상운타(注箱雲朶)〉 후발(後發)에는 그가 제자 취련과 함께 상경했으며, 홍현주와 신위가 완호의 탑명과 서문을 짓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두었다. 아울러 초의가 추사 댁의 불운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이 해 겨울에서 봄까지 추사의 집에서 머물렀던 당시 상황도 이 후발에 의해 밝혀졌다. 한편 대흥사로 돌아간 초의는 추사와 내왕이 한동안 뜸했는지. 1835년 2월 초의의 상경을 재촉하는 추사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草衣木食又經一臘 雖甲亦滿五十 師當有不皺者在顧此流轉 齒不勝剩 髮未盈梳 今日之日不如昨日之日 亦足浩歎 一別之後 消息兩忘 頭輪山頂 甚於夜摩忉利 非聲聞所可梯接歟 香蒲供養年後更如何 俗人抱痛 窮山萬念尤灰 惟老親間蒙恩敍 感戴蹈慶 不知塵剎何以報答也 雖遁迹世外 戢影林間 山哀浦思理當同情 不欲一來以效奔赴之義耶 須圖之也 適聞邸便甚妥 畧付數字 亦望寄答於此回也 鐵船無恙耶 無以各幅 輪照亦佳 留 不宣

草衣를 입고 나무 열매를 먹으며 또 한 해가 지나니 나이 또한 오십이 다 되었습니다. 그대는 당연히 주름지지 않을 방법이 있겠지만 이리저리 떠도는 나 같은 사람은 이빨이 성글어져 이쑤시개도 감당하질 못하고, 머리까락조차 빠져 빗질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제만 못해 몹시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별한 후 양 편의 소식을 다 잊었습니다. 두륜山頂이 야마천이나 도리천보다 높아서 불제자인 그대는 사다리를 걸쳐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인가요. 수행은 해가 지난 후 다시 어떠신지요. 나는 아픔을 껴안고 궁벽한 산에서 온갖 생각에 더욱 사위어지는데 늙으신 부친께서는 잠시 벼슬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 감격과 경사를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에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 밖에 자취를 감추고, 산림으로 그림자를 숨겼다할지라도 산도 슬퍼하고 강물도 시름겨워하는 이치는 같은 것이니 한번 와서 분부의 의미를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는 것을 계획해 보십시요. 마침 감영에서 온 인편이 매우 편하다고 하니 대략 몇 자를 적어 부칩니다. 돌아오는 이편에 회답 주시길 빕니다. 철선스님은 별고 없는지요. 각자에게 쓰지 못했으니 돌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완당전집〉 '벽해타운첩'의 시가

초의 1830년 상경해 추사집서 묵어
추사 좌부승지 제수돼 다시 초청

초의가 대흥사로 돌아 간 것은 1831년 가을이후이다. 당시 초의는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내왕이 소원했는지 '이별한 후 양편의 소식을 다 잊었다'고 하였다. 초의와 추사는 동갑이다. 추사의 나이가 오십이 다 되었다고 하니 초의의 나이 또한 오십이었으리라. 불제자 초의야 불로장생의 비방을 터득하여 주름도 없겠지만 이미 '이빨이 성글어져 이쑤시개도 감당하질 못하고, 머리까락조차 빠져 빗질할 것도 없다'는 추사의 푸념은 늙어짐을 통탄하는 속인의 심사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해학이 묻어난다. 또 추사가 '늙으신 부친께서는 잠시 벼슬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 감격과 경사를 입었다'고 한 것은 그의 부친 김노경이 7월19일 판의금부사에 제수된 것을 말한 듯하다. 나라를 위한 그의 충심이 조정에 알려졌는지 이 해 8월 추사 또한 좌부승지에 제수되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부고를 받은 사람처럼 달려오라는 것은 집안의 경사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 5신과 〈벽해타운첩(碧海朶雲帖)〉에 수록되었다. 〈벽해타운첩(碧海朶雲帖)〉을 통해 이 편지를 쓴 시가가 밝혀지게 되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① 약쑥초 90cm×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27cm
④ 약쑥초 밀대 4.7∮×25cm
⑤ 약쑥초 1호 5.9∮×18cm
⑥ 약쑥초 2호 5.9∮×14cm
⑦ 약쑥초 3호 4.7∮×13cm
⑧ 약쑥초 4호 4.7∮×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27cm
④ 밀납초 밀대 4.7∮×25cm
⑤ 밀납초 1호 5.9∮×18cm
⑥ 밀납초 2호 5.9∮×14cm
⑦ 밀납초 3호 4.7∮×13cm
⑧ 밀납초 4호 4.7∮×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진짜 부자는 마음 살피는 불자"

우승택 생테크연구소 대표

세계 경제에 불경기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땅과 같은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 재산 증식을 위한 방법이 신뢰를 잃고 있지만 역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이러한 세간의 분위기 속에 종교관련 코너에서도 불자들의 시선을 끄는 책이 있으니 바로 〈우승택의 생테크 - 날줄 원각경〉이다.

재테크를 불교적으로 해석한 책인 〈날줄 원각경〉은 MBC경제야 놀자 고정패널로 유명해진 우승택 생테크연구소 대표가 재테크를 불교적으로 해석해 2010년 내놓은 책이다.

2003년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금융가로서 금강경 해설서 〈심상사성 금강경〉을 출간하기도 한 그가 말하는 불교 안의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

12월 12일 서초동 생테크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돈의 흐름을 보는 '재테크'와 마음의 흐름을 보는 '불교'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실 세상 어디에도 부자 되는 답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못되는 이유는 뚜렷하죠. 세상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승택 대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살피라고 말했다. 투자는 결국 '돈과 심리'이기 때문에 마음조차 모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느 사찰에서 기도 잘해 땅을 산다 던지, 전문가나 용한 스님을 만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돈'이라는 강력한 원에 의해 쓰이는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더 나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 씀의 이치를 볼 수 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원각경〉일까? 우 대표는 "〈원각경〉은 부처님이 문수·보현 등 12보살들에게 관법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소개했다. 세상 흐름을 살피는 지혜는 모든 경전에 있지만 특히 〈원각경〉에서는 관법과 그 실천을 설했기 때문이다.

우 대표는 "원래 〈금강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심상사성 금강경〉이죠. 이 책을 읽은 한 스님이 〈원각경〉을 추천해 주셨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다른 투자전문가들과 달리 '무슨 주식 팔고, 무슨 종목 사세요', '어느 지역 아파트가 유망합니다'는 식의 정보보다는 돈에 대한 철학을 깨우쳐주는데 역점을 둔다.

"저도 과거에 감당하기 힘든 실패를 겪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재산도 늘어납니다."

〈금강경〉으로 마음 잡고 실패 극복

우승택 대표는 대학생 때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외대 재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 외에는 딱히 불교공부를 하지 않았던 우 대표가 불교에 심취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를 겪으면서부터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금융쇼크가 몰아쳤다. 이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는 명퇴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 대표에게도 이런 바람이 예외 없이 몰아쳤다. 우 대표의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섰을 때였다.

우 대표는 일타 스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싶은 마음에 천수경과 관음경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우 대표는 "관세음보살이 정말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 흔들림은 수행정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털어놨다.

'잘 할 수 있을까'는 불안감과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대학 시절 '머리 쓰는 사람은 꼭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금강경〉이 생각이 났다. 한쪽에 놓아둔 〈금강경〉을 편 순간 우 대표의 마음은 새롭게 거듭났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우 대표는 〈금강경〉의 아리아인 사구게 게송을 읊으며 〈금강경〉에 대해 설명했다.

"억지로 경전 공부를 해나가던 중 '관세음보살이 있네 없네'를 떠나서 '도대체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풀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무아(無我)라는 데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당연히 관세음보살도 없는 거지!"

우승택 대표는 내가 환(幻)이고 공(空)이라면 돈도 환이고 공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우 대표는 "환으로써 환을 잡으면 되겠구나 생각했다. 나중에 다 없어지든지 놓고 가든지, 아니 내가 없어지면 돈도 없어지므로 일단은 나를 알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흔히 사람들은 불교를 세간을 넘어선 것, 나쁘게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며 느낀 것은 불교야 말로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이란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성공학인 것입니다."

세상 눈밝은 이가 바로 부자

불교 공부를 하며 우 대표는 자신감을 찾고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막혔던 일과 꼬였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우 대표는 당시 부자고객들의 마음씀과 성공여정이 깨달음의 여정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발심 이후 지금까지의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고 부처님이 제시한 깨달음의 과정을 따라 걷는 수행이 부자들의 성공과정과 똑같았던 것이다.

불교는 가장 현실적 가르침 '성공학'
탐진치 걷어내면 자기 운명 개조
불교+재테크 〈원각경〉 책 펴내
부자 재가자들이 종단 외호해야

"예를 들어 금강경에는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마음을 쓰라(應無所住 而生其心)'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본 부자들은 세상을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이른바 '눈이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 대표는 〈원각경〉 중 '개조명운(改造命運) 심상사성(心想事成)' 부분은 부처님이 세상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을 알려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원각경〉에서는 모두가 원만구족한 깨달음을 갖고 있기에 탐진치를 걷어내면 자신의 운명을 개조해 자신의 생각대로 이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희로애락에 허송세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 대표는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 세간해(世間解)가 있다. 세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 또 나를 알아야 참된 불자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의 상품부터, 또 주변사람의 행동과 마음상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

"〈원각경〉을 공부하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법, 돈 버는 법, 사랑 받는 법 등이 머릿속에 혼란 없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었습니다."

우승택 대표는 불법에 기반을 둔 돈 버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발원했다. 우 대표는 먼저 2003년 〈금강경〉 해설서인 〈심상사성 금강경〉을 출간한다. 본격적으로 불교계 활동에도 나선 그는 2004년부터 불교신문에 '영어로 읽는 화엄경', '불자들을 위한 재테크 코너', 월간 불광에 '우승택의 행복경제' 불교TV에 '우승택의 유식으로 하는 투자클리닉' 등을 연재했다. 또 불교인재개발원에서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활발한 강연도 이어갔다. 2010년에는 〈날줄 원각경〉을 펴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면 100명의 전문가, 만권의 책이 말하는 것보다 상황을 여실이 볼 수 있고 방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한다는 우문에 우 대표는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믿으십니까? 팔아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연의 소치로 잠시 머무는 것이다. 주식을 사고파는 마음은 얼마나 믿을 만하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우 대표는 "업이 욕망을 재료로 돈에 대한 갈망을 낳은 것"이라며 그 욕망을 바로볼 것을 지적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이는 어떡해야 하나. 우 대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업을 쌓을 것을 강조했다.

우 대표는 "'재물'도 결국 신·구·의 삼업에서 오는 하나의 환(幻)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걸쳐 새 업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돈이라는 놈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평소 경전 등을 통해 마음을 챙겨 깨어있다면 그 지혜가 경제생활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근검·절약해 남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부자 업"이라고 말했다.

10억 기부 장자 100명이면 불교산다

우 대표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일까. 수많은 불자들이 그러하듯 불법 아래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다. 우승택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1년에 10억 이상 기부할 수 있는 장자들이 100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장자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다.

"종교도 돈, 재정규모에 따라 교세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님이 바뀌어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재가자들이 종단을 외호해야 합니다."

우 대표는 기원정사를 보시한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일화를 들며 불교 외호를 위한 장자 배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매년 10억 이상 기부하려면 최소 300억이 필요합니다. 300억 자산가 100명을 키우던지 찾던지 불교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자산가를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생테크 연구소 지하에 마련된 아나타핀티카 교육관이 그 것이다. 매주 수요일 오프라인 유료강좌와 온라인 무료강좌로 진행된다. 강연 소재는 경제심리학자 사야나 로만이 지은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과 〈원각경〉이다.

우 대표는 이 책들을 이용해 각 경제활동 중 닥치는 마음경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금융권에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은 우 대표의 일화가 함께 곁들어진 강의다.

"무릇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현상이 진실한 것이 아닌 줄을 알면 여래를 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를 평생의 도반으로 함께 마음공부를 해가면 각자에게 허락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행복 아닐까요. 모두 부자 되십시오."

우승택 대표의 힘찬 목소리에 새해에는 불자모두가 부자가 될 것만 같은 희망이 묻어나왔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승택 대표는 … MBC '경제야 놀자'에 고정 출연하며 널리 알려진 우승택 대표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경복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캐세이 패시픽, 유화증권을 거쳐 1993년부터 삼성증권에서 일하며 PB소장, 호텔 신라 자산클리닉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생테크연구소 대표로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PB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금강경〉을 성공학으로 풀이한 '심상사성(心想事成) 금강경'과 금강경의 가르침을 주식투자에 응용한 '사랑하면 보인다, 우승택 투자' 등이 있다.

지하 아나타핀디카 교육관에서 강연하는 우승택 대표. 강연에는 2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우승택 대표가 쓴 책과 강의 교재들. 우 대표는 지속적으로 교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법일기

저의 담임스님이 되어주시겠어요?

고집스러운 유발상좌와의 인연

조금은 고집스럽고 집착이 강한 신도가 있었다. 평소에는 원만하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언행을 유지하지만 한 번 고집이 발동하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었다. 그런데, 이 신도님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를 내게 유발상좌로 입적시키고 싶다고 청해왔다.

이전까지는 신도들의 이런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신도님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아야겠다고 하고 가까운 도반들과 상의를 해보았다. 결론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다른 스님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그 불자님은 얼마간 하소연과 불만을 토로했지만 내가 소개한 스님에게 아이를 유발상좌로 인연 맺었다.

지금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마을에는 수양아들, 수양딸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족과 친척이 없어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려고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자 가족과 친척이 있어도 서로 보고 만나면서 애틋한 정과 믿음이 쌓이면 "우리 엄마 아들 하자거나 엄마 딸 하자."고 해서 인연을 맺기도 했다.

이런 비슷한 인연이 불교의 유발상좌이다. 달리 마을상좌라고도 하는 유발상좌는 자신 스스로나 자신의 자녀를 스님의 제자로 입적시키는 것이다. 유발상좌는 단순한 사제관계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혈연에 준하는 깊은 인연으로 여긴다.

유발 상좌제도가 좀 더 보편화되었으면 해서 법문을 통해 제안한 것이 '담임스님'이다. 학교에는 담임선생님이 있어서 담당학생들을 좀 더 가까이 신경을 써서 돌보곤 한다. 하지만 불자들은 수 년 또는 수 십 년씩 절에 다녀도 스님들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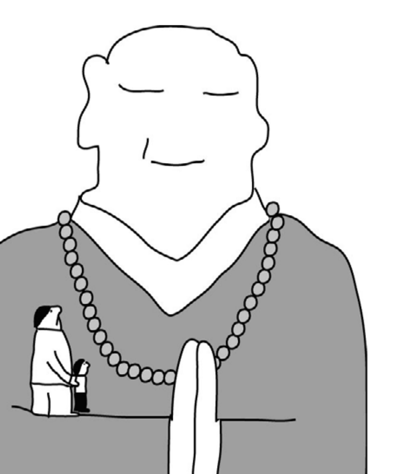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수양아들 같은 유발상좌
인생상담해 가며 바른길 인도
부담스러워도 피하지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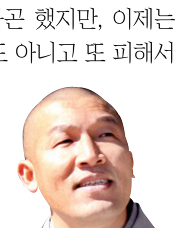
아무리 부처님이 좋고 절이 좋아서 불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스님들로부터 직접적인 상담이나 지도를 받을 수 없다면 바른 신행의 길에 접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인 인연이 너무 깊어도 좋지 않겠지만 스님들과 불자들 간의 거리가 지금같이 너무 먼 것도 문제다.

어느 날, 아이를 다른 스님의 유발상좌로 입적시킨 불자님이 내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 정말 인연을 잘 맺어주신 것 같아요. 스님께 거절당한 것 같아 처음에는 섭섭하고 속이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스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그리했지만 그래도 저는 스님신도 할거예요." "하하, 그렇게 하세요."

수년 전 방송에서 했던 법문을 엮어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의 '담임스님을 모시라'는 글을 읽고 가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오곤 한다. "스님, 저도 스님을 담임스님으로 모실 수 있나요?" 그럴 때 마다 흔쾌하게 답을 보낸다. "네, 당연하죠. 부처님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스님들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가까이 자주 갈 수 있는 절의 스님들과 인연 맺기를 권하곤 한다. 근처의 절에 가까이 있어야 담임스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터이니까 말이다.

세월이 쌓여가면서 유발상좌의 인연도 늘어가고 담임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많아진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양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인연이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스님들이 "스님, 저의 담임스님이 되어주시겠어요?"라는 물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불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 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